

새 책

▶게스트하우스 Q(박영란 지음)=아버지의 죽음을 겪은지 얼마 되지 않은 열일곱 살 오정성. 할머니와 함께 고모의 게스트하우스에 잠시 머물게 된 정성은 날마다 새로 오가는 사람들의 사연을 곁에서 지켜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저자는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실수와 실패를 담담히 그렸다. 그 속에서 서로 보듬고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건넨다. 창비, 1만2000원.



▶나쁜 기억을 지워드립니다(기시미 이치로 지음·이환미 옮김)=160만 부 베스트셀러 '미움받을 용기'를 쓴 작가의 신작이다. 일과 사랑, 가족과 세상,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상처받은 23명이 철학자를 찾아 '나쁜 기억'을 털어놓는 대화를 담았다. 그 기억과 마주한 철학자들은 고통을 외면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나쁜 기억은 지울 수 있을까. 부키, 1만5000원.



▶리틀(에드워드 캐리 지음, 공경희 옮김)=2018년 출간 이후 여러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며 화제를 모은 소설은 특이한 밀랍 조각가 닥터 쿨티우스의 도제가 된 마리를 주인공으로 세웠다. 그가 철학자와 악당, 단두대 희생자들의 두상을 조각하는 과정은 프랑스 대혁명기의 불안과 혼란에 잠식된 파리 도시의 기이하고 별난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 흥미롭게 펼쳐진다. 아케이드, 1만8800원.



▶소비 수업(윤태영 지음)=현대인은 매일 무언가를 소비한다. 친구를 만나 밥 먹고 커피를 마시고 영화 보거나 전 시회를 가기도 한다. 대학에서 '현대 소비사회의 이해' 강의를 해 온 저자는 소비라는 프리즘으로 현대 사회의 풍광을 살펴본다. 유행은 현대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대인들은 고단함에도 왜 몸 가꾸기를 마다하지 않는지처럼 소비를 통해 현대인의 욕망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게 무엇인지 탐색한다. 문예출판사, 1만8000원.



▶다람이의 종이비행기(토네 사토에 지음·엄혜숙 옮김)=혼자 종이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하는 다람이. 소중한 종이비행기를 누가 만지는 것도, 날리는 것도 싫다. 그러던 어느 날, 바람에 날려간 종이비행기를 타고 숲속 친구들과 놀게 된 다람이는 함께하면 더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가진 것을 나눌 때 큰 기쁨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봄봄, 1만3000원.



▶뚜이, 뚜우(찰리 팔리 글·레인 말로우 그림)='잉'하고 반쪽 소리만 낼 줄 아는 부엉이 '뚜우'는 '부잉'하는 소리를 채워줄 친구를 찾아 나서지만 그 여정은 험난하기만 하다. 무뚝뚝한 사슴 무리를 만나 냉대를 당하고, 음흉한 여우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한다. 뚜우가 반쪽 친구 '뚜이'에게 향하는 얘기는 서로 어우러져 사는 의미를 전한다. 바둑이 하우스, 1만3000원.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자기 초월의 약동' 꽃 피울 힘은 교육

심리학자 폴 디엘의 '사랑의 욕구'

운명의 정점 이르러는 본성 교육 개입해 방향 잡아줘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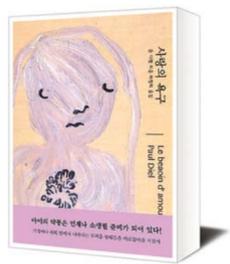
다섯 살 여자아이가 있다. 아이의 부모는 산속에 위치한 별장식 호 텔을 운영하며 안정적으로 살지만 아이는 버릇없고 이기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보인다. 투숙객들은 모두 이 아이를 욕하고 피한다. 말 그대로 못된 아이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디엘의 아내인 잔 디엘은 그 여자아이를 두 달 동안 관찰했다. 여자아이는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음 행동이 개선됐다. 아이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혐담도 줄었다.

교육을 주제로 쓴 폴 디엘의 글 네 편과 잔 디엘의 글 한 편을 묶은 '사랑의 욕구'는 못된 아이 사례 연구를 비롯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1950~60년대에 발표된 글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점이 있다. 폴 디엘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욕구로 사랑 받고자

하는 욕구, 존중 받고자 하는 욕구, 바르게 지도 받고자 하는 욕구를 꼽았다.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충족시키길 원한다는 의미이다. 그 때문에 엄마를 마음껏 사랑하고 엄마에게 충분히 사랑받고 싶은 아이가 그럴 수 없을 때 아이의 마음은 다친다. 이같은 경험은 막 발달하기 시작한 아이의 정신을 왜곡시킨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부모들이 항상 모범적일 수는 없다. 아이의 욕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꺾어버리는 일들이 생긴다. 폴 디엘은 부모들이 범하는 이같은 교육상의 실수를 '인간 이기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대신 그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가 '자기 초월의 약동'이다. 약동은 자신의 타고난 자질을 꽃 피우려는 힘으로 자기 운명의 정점에 이르러자 하는 바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약동이 우리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 가정이나 사회 등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대목에 교육이 개입한다. 교육이 할 일은 아이와 청소년의 행동을 인습적 규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들의 약동을 궁극적으로 꿈꾸는 삶의 방향에 맞춰주는 데 있다. 저자에 따르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나와 너의 경계가 분명하고 타인과 타당 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화로운 인격체를 키워내는 것이다. 그는 비록 완벽하게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교육의 이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하정희 옮김. 바람의아이들, 1만7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이 책 세계 여성의 역사

위대한 절반의 사라진 흔적을 찾아



2018년 열린 3·8 세계여성의 날 제주지역 여성대회.



1908년 3월 8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며 목숨까지 위협받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인다. 그들은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쳤다. 빵은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들의 생존권을 의미하고 장미는 참정권을 뜻했다. 3·8세계여성의 날의 기원이다.

20세기 초에 '마침내' 여성들이 목소리를 냈지만 지금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까운 100년 동안 여성들이 자율성과 업적의 성취라는 면에서 지난 수천 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커다란 성과를 거뒀지만 그것이 늘 진보는 아니었다. 21세기에도 낮 동안의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사노동이 여성들을 기다리고 있다.

영국 로잘린드 마일스의 '세계 여성의 역사'는 세계사 속에서 가장 학대받고 지워진 존재가 여성이었다는 걸 새삼 일깨운다. '인류를 지탱해온 '위대한 절반'의 사라진 흔적을 찾아서'란 부제가 달린 책으로 개정판이 우리말로 번역됐다.

최후의 만찬은 누가 차렸나 고대 인류 여성 채집에 지탱 그럼에도 지워진 존재 여성

지은이는 독자들에게 성서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은 누가 차렸을까란 질문을 던진다. 만일 남자 요리사가 담당했다면 오늘날 영광하는 추종자를 거느린 성인이 되어 그를 기념하는 축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세계 여성의 역사'는 이같은 물음에서 시작해 최초의 여성은 위대한 여인이었고 남성들의 수렵이 아니라 여성들의 채집이 고대 인류가 생계를 꾸려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힌다.

르네상스, 종교개혁, 신대륙 이주 등 수많은 격동기에 도 여성들의 삶만은 한결 같았다. 우리가 배웠던 역사를 떠올려보자. 정치가, 의사, 과학자, 화가, 음악가, 탐험가, 시인, 소설가와 같은 직업을 떠올릴 때 남성의 실루엣이 먼저 그려지는 게 현실이다. 생물학적으로 성비가 비슷할 수 밖에 없으나 역사책에 등장하는 남녀 숫자는 그토록 불균형했다.

"세계 역사에서 모든 혁명, 평등을 추구하던 모든 운동이 성적 평등을 이루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는 저자는 "우리 모두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쉽 없이 나아가자"고 했다. 신성림 옮김. 파피에, 2만2000원. 진선희기자

산·바다 흔든 바람 딛고 어울림의 풍경

김병택 시인 세 번째 시집 '떠도는 바람'

그는 이번에 바람을 붙잡았다. 그것은 얼굴을 부비고 옷자락에 살랑이는 바람만 일컫지 않는다. 시인은 비유적·심리적 바람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했다.

문학평론가로 제주대를 퇴임한 이후 2016년 1월 '심상' 신인상을 받으며 시인으로 새로이 문단에 발을 디딘 김병택 시인이다. 그가 '떠도는 바람'이란 표제로 세 번째 시집을 묶었다. 시인이 평소 거니는 한라수목원에서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까지 닿으며 현실과 그 너머의 세계를 꺼내고 바람을 노래하고 있다.

시집은 '아버지를 태운 낡은 어선이 바다 한가운데로/ 미끄러지듯 나아가 때때로// 어머니는 오랫동안 손을 흔든 뒤/ 먼 바다 쪽으로 길고 긴 소망의 줄을 던졌

다'는 구절이 들어있는 '바다 앞의 집'으로 열린다. 바람에 따라 넘실대는 파도가 눈에 들어오는 유년의 풍경을 그려낸 시인은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여러 얼굴을 지닌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인은 '기상예보 없어도, 내일의 강우량을 예상하는 일'('아침 산행')이 어렵지 않은 나이가 되었다. '모두 밝히지 못한 그 시절의 일들을 마루 시렁에 놓아둘 수밖에'('마음속의 반란') 없었던 날이 있었다. '4·3 때 돌아가신 큰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지켜온 우리 집안의 금기였다'는 '강신 이전'에서 그 연유가 짐작된다. 시인은 끝내 '젊은 시절은 내내 겨울이었다'('젊은 시절, 겨울')고 고백한다.

제주섬에 수시로 불어대는 바



람은 때때로 산과 바다를 흔들어 놓았지만 그것들은 한편으로 못 존재들을 의미롭게 만든 시간이 되었다. 그래서 시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중년 남자도/ 여기저기서 날아온 새들도/ 한 구석에 외롭게 피어 있는 꽃들도/ 나뭇가지들이 갈라놓은 하늘도// 함께 수목원을 만들고 있다'며 '한라수목원(3)'에서 전하는 어울림의 풍경은 빛이 난다. 세미, 1만2000원. 진선희기자

WINIX

공기청정기

신광로터리 | 빽스 | 마린나사거리 | 마린나호텔

신성주로터리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타워프라임

APRM833-JWK (26평)
~~599,000원~~
500,000원

타워X

ATGM500-JWK (15평)
~~329,000원~~
265,000원